

닫는 사람입니다.

로마 10,8-17

말씀은 네 가까이 있으니 곧 그대의 입과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요한 1,1-14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디모 3,14-17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2데살 2,13-17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만물로 택하여 영에 의한 성화와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구원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찰

1. 나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망과 바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보며, 과연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고 바라는 열망이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봅시다.
2.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성찰할 때 종종 나에게 제기되는 도전은 내 삶의 어느 부분입니까? 하느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 하느님 말씀의 현존 앞에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느 부분입니까?

창조주 하느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리는 순례자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네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야훼께서 네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 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 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시편 121편)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가 보다. 그것이 자질구레한 일상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든 혹은 절대적 진리라 이름하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이든 우리의 마음은 늘 그 무엇인가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행복이라 일컫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고, 타 종교인들 역시 나름대로의 표현양식 속에서 영혼의 내적 갈구를 채우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표현처럼, 인간의 길을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하여 걷는 순례의 길로 묘사하는 것은 삶이 단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빚어져 결국에는 무덤에 이르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어떤 내면의 여정이기도 하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리라. 마음 속의 아주 작은 갈망이라도 채워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듯이, 마음 속 깊이 심어진 하느님을 향한 순수하고 고상한 갈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쉴 새 없이 방황과 혼돈 속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의 존재 심층에 심어진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만들어 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순례길'이라는 표상이 묘사하는 삶이리라. 순례자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 하지만 이 길에는 많은 고독과 위험이 도사리

고 있다. 이러한 고독과 어려움의 위험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모험이 되기 위해선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가 요구된다.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면, 엄청난 포근함 속에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포근히 안아 주면 그 포근한 사랑의 숨결이 내 안에 깃들여 있는 두려움뿐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서서히 녹여 버린다. 감싸주는 사랑은 나를 속박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늘 가져다 준다. 창세기는 첫 시작에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2)고 한다. 하느님의 기운이 혼돈이라는 어둠을 감싸면서 창조의 질서와 생명이 살아나는 표상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성모님을 방문한 천사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표상을 담고 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실 터이니,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입니다”(루가 1,35).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느님을 창조주로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을 의미하며,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진 아기마냥 하느님의 사랑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품, 사랑하시는 그분의 가슴 안에서는 순례의 여정에

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다림의 희망으로 바뀌어 피어난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체득한 신앙의 태도는 '신뢰'라는 말에 모두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을 한 백성으로 이루시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을 키워오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의 행위는 성서의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빚으시어 당신의 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사 64,7; 예레 18,6; 에페 2,10 참고). 순례의 길이라는 특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의 참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순례자가 되돌아가야 할 길

'순례자의 노래'라 불리는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순례자와 그 여행길을 축복하는 사제가 나누는 대화를 기도로 담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마친 순례자는 힘들여 왔던 길을 이제 되돌아가야만 한다.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요즘이야 모든 것이 편해져서 돈만 있으면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안락한 고급호텔에서 머물며 친절한 여행 안내자를 구해 여유를 가지고 즐기며 구경하는 것이 순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관광이지 결코 순례는 아닐 것이다.

순례자가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할 길은 고독과 위험이 도사린 길이다. 그 길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루가 10.30-37)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기고 마구 두들겨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산길이다. 순례자의 마음 속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성전에 머물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되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고향으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 가던 길을 되돌려 실망과 좌절을 남겨준 그곳으로 되돌아가듯(루가 24.13-35), 이 순례자도 위험과 고독이 도사린 순례길을 또 다시 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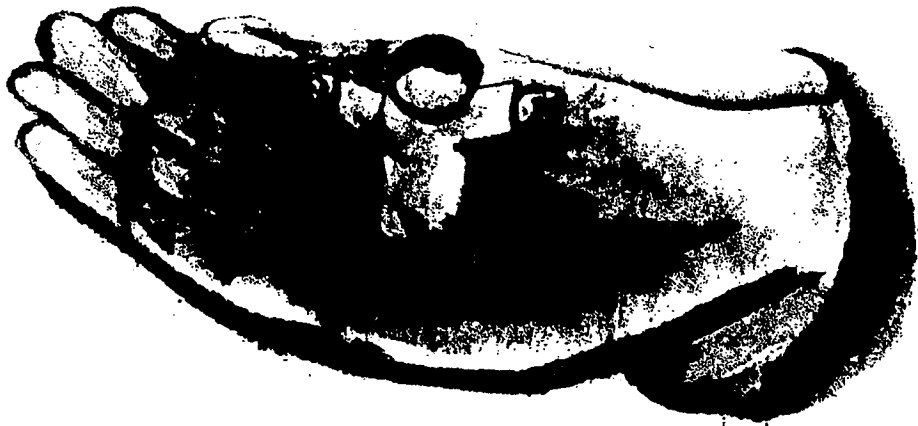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은 늘 우리를 우리가 속한 자리에 되돌려 보낸다. 어떤 때는 산 속에 들어가 조용하고 한가하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뜻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이러한 번잡한 욕심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양심을 살피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현재를 부인하고 낭만의 꿈 속에서 내일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 눈에 띈다. 야속하게도 하느님께서서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달콤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지긋지긋한 현재를 감싸안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용기를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나를 내일의 꿈 속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늘 현재로 나를 되돌려 보내신다. 하느님께서서는 희망

에 어린 미래의 마음으로 현재를 감싸안도록 늘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 순간 그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이미 숨어버리셨다.

험한 순례길에서 체험하는 하느님

되돌아가야 할 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앞에서 순례자는 기도한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순례자는 걸어온 길을 상기하며 도중에 겪은 여러 어려움을 또 다시 넘어가야 할 산길로 묘사한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고속도로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험한 산을 오르내려야 하며, 물결 센 강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결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풍겨나는 감상적인 소리만은 아니다. 오히려 걱정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움켜잡을 것은 단지 하느님뿐인 가난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낭만적이고 기분 좋은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러한 낭만적인 인생 여정에서 하느님을 신뢰하기란 무척이나 쉽겠지만, 실제로 하느님께 신뢰를 드러야 하는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마음 속에 위안과 평화가 가득할 때에야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쉽겠지만, 오히려 황량하고 메마른 마음의 상태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신뢰하기



는 더없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의 순례자에게 사제가 축복을 내린다. “네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사제는 단지 창조주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려는 순례자의 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하느님께서 졸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현이 새롭다. 어쩌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아무런 관여도 관심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체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체험일런지도 모른다.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평온한 상태에서 돌아켜보니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여겨지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 내고, 거기에 하느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걸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일런지 모른다. 하지만 사제가 읊은 축복의 기도에 표현되어 있듯이, 성서는 하느님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와 더욱 밀접히 현존해 주신다

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 삶의 모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며, 당신만이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도록 초대하신다.

그래서 사제가 베푸는 축복의 언어가 걱정으로 가득 찬 순례자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듯이, 시편의 여러 표상들은 우리에게 안도의 숨을 쉬도록 포근하고 안전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낸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너를 내신 분', '너의 임금님',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너의 피난처', '너의 요새.' 이러한 표상들은 순례자가 순례의 여정에서 의지해야만 하고, 아니 그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 체험하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언어들이다.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창조의 행위이다. 이 창조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로서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이 나를 감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들을 내 삶을 빚어 만들 때 쓰시는 진흙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하느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할 때, 즉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신뢰'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하는 순례자의 소명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이다. 하느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다. 이 순례의 길에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리

는 소명을 듣는다. 마음 깊이 깃든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해서 세속에 대해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열린 신앙을 지니도록 촉구한다. 세상을 향해 열린 신앙이란 가깝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넓게는 주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분명히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스런 신비 앞에서 인간이 듣게 되는 소명은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소명으로서 세상을 향한 소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을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발견한다. 이 소명은 사랑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식별되고 성숙하게 되어,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기도란 순례의 행위이다. 하느님을 찾아 그분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실상을 반영하는 순례의 행위가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의 여정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내면의 숭고한 열망이 뛰어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우리의 소명은 그 숭고한 마음 속의 열망으로부터 올려 나온다. 기도하는 순례자의 마음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세계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섬기도록 해주는 것이 무궁무진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묵상 성구

- 시편 121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 시편 149 너를 내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너희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 에페 1,3-14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 시편 145 야훼는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지극하시다.
- 집회 16,24-17,32 너는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내 말을 네 마음 속에 새겨 두어라.
- 시편 91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생활

1. 내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열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느님과 의 일치를 구하는 이러한 갈망들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곰곰이 기도해봅시다. 삶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이 열망들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과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열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

당신은 오장육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빔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

하느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 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습니다.
 (시편 139,1-3,13-14,17-18).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나 보다. 어렸을 때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어른들을 졸라 특별히 귀신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언가 그 신기함 속으로 빨려들어가 상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현실처럼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그저 어린이스러운 것만은 아닌 듯 싶다. 어른들도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서, 비록 경험과 이성을 나름대로 사용하여 비판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기' (氣)나 '도' (道)에 심취해서 신기한 것에 몰입하기도 한다. 성숙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적이나 신기한 종교체험의 이야기들 앞에선 맥없이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물론 이러한 것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은 결코 아니다. 손금을 읽고 관상을 보고 점을 치거나 하는 행위들이 단지 막연하게나마 앞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에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심성 깊숙이 담겨 있는 '신적인 것'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러한 습성들이 주변에서 눈에 띄는 여러 사물이나 자연 현상 등에 신성을 부여해 이해하고, 삶의 다양한 체험들을 천사 혹은 악마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로 여

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생 여정에서 겪게 되는 전디기 어려운 일들이나 벅찬 일들을 '하느님의 섭리' 혹은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며 무엇인가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배운 교육의 탓이었건 혹은 나 자신이 어리석어 그랬건, 소련을 악마의 나라라고 상상하며 자라온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저 쓴웃음이 나올 뿐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이해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습성이 가끔은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대해 더욱 넓은 수용성을 키워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전디기 힘든 상황들을 하느님의 섭리나 운명의 조화로 받아들이며 살 때, 쓸데없이 힘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하느님이 아닌 것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여하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며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창조주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말이다. 전디기 어려운 일에 처한 나에게 '하느님의 뜻'이라며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고상한 충고를 하는 친구를 향해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신적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 이러저러한 삶의 체험들은 때로 우리를 가두거나 묶어 혼돈 속으로 끌여가기도 한다. 결국 인간 이성을 넘어서는 그 어떤 피조물에 신적인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 굴레에 얽매

이게 해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은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깊이 성찰하도록 새로운 빛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혼돈의 무(無) 속에 빛을 비추시며 질서를 지어내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담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무질서로 이끄는 '신적인 것'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부 습성을 해방시켜 질서와 정돈 속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엿보게 해 준다. 혼돈 속에 담긴 우주에 질서를 불어넣으시며 창조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기운은, 세상을 하느님의 창조물로 인지하는 내심의 눈을 마음 속에 심어주신다. 세상을 늘 새롭게 일구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도록 불림받은 인간의 역할을 그리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 역시 인간의 내면 속에 질서를 일구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들로서 하느님에 의해 비롯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설사 그것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것일 뿐이다. 구태여 그것들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며 신성을 담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힘을 행사하는 신격화된 모든 허상 위에 하느님께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2).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

우리가 삶에서 만나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은 성서에서 거센 물결, 홍수, 저승(서울) 등의 이미지와 더불어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악마화된 힘으로 묘사된다: “야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등등, 산 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을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시편 124,2-5).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세력들 위에 주권과 창조력을 행사하신다. 하느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창조신앙은 창조된 우주만물은 그 자체로서 선하다는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실존 체험들을 그저 인간적 체험이며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조 이야기는 탈신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주위 사물과 자연현상에 신격을 부여하는 인간의 습성에서 하느님만이 홀로 주님이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다. 이러한 탈신화의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한다. ‘신적인 것’에 얽매인 인간은 마치 그물에 걸린 참새와도 같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생명을 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그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다(시편 124,7-8 참조).

나는 수도자이고 사제이기에 남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떠들어야 하는 때가 많다. 때로는 삶에 대해 통달하고 매사에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양 남을 격려하고 떠들어대지만,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어떤 그물에 걸린 듯한 느낌을 지니게 된다. 읍에게 다가간 친구들처럼, 아니 다가온 친구들과 인생의 알 수 없는 신비들에 대해 고뇌하며 답변하는 읍처럼 어떤 그물에 걸려 있는 듯한 인상에 사로잡히는 때가 많다. 스스로 부여한 인생의 의미에 의해 스스로 갇혀 있는 가련한 처지임을 모르면서, 기고만장한 태도로 하느님께 인생의 의미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웃기는 소리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면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야 임마! 왜 그렇게 갑죽대냐?” 하시며 일격을 가하신다.

기막힌 삶의 불행 앞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탄원하는 읍에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 역시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읍에게 그 어떠한 논리적 해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신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읍기 38.2-4). 삶의 주인은 역시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도전이다.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고 승복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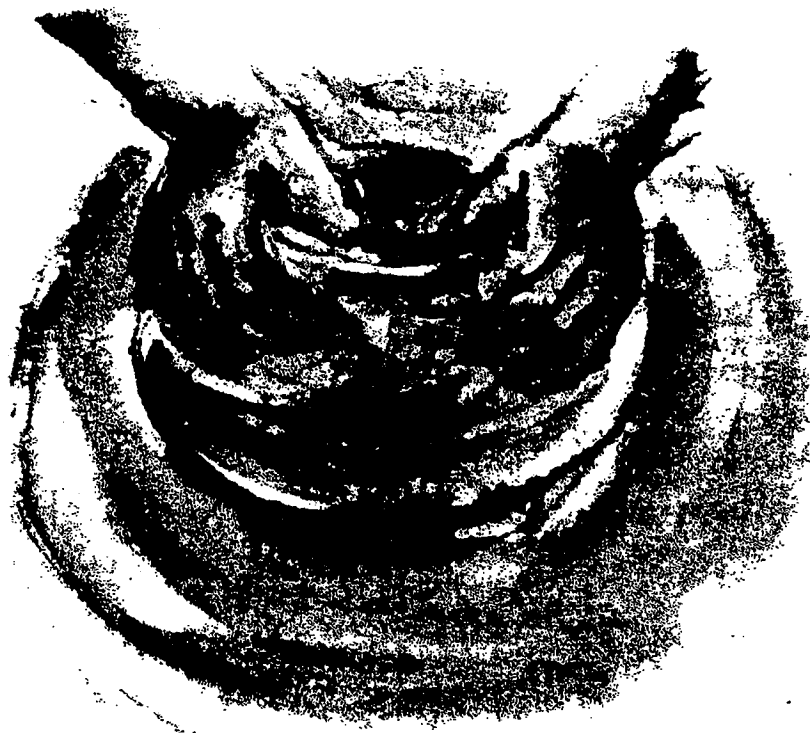
하느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지극히 존엄한 자신을 의식하며, 동시에 한없이 어둡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삶은 한없이 흐트러져 어지럽게 되고, 그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을 때 내 삶은 제대로 방향 잡혀 질서 안에서 당신의 모상대로 빛어진다. 그래서 성서는 인간 실존의 양면적 모습을 옹기장이의 손에서 빛어지는 진흙에 비유한다(예레 18.6 참조). 우리의 삶은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이며, 동시에 내 삶 주변의 여러 상황들도 하느님에 의해 조성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도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신 이,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이사 64.7) 하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다. 성 바울로 사도께서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2고린 4.7) 하시듯이,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지니고 있고 그 이름 속에 고유한 나의 소명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를 이루도록 초대된 소명일 것이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소명이 담겨 있다는 말은 바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비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을 지닌 존재들이다. 성서

나의 그러한 이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 의의로운 인격



는 하느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고(예레 31,33), 하느님의 두 손바닥에 우리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이사 49,16)고 고백한다. 당신의 비밀이 간직된 우리 존재의 심층을 하느님께서는 “환히 아신다” (시편 139,1). 하느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비밀 또한 하느님 안에 담겨 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시편 139,14-15).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

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시편 139,14) 하며 경탄을 발한다.

당신 생명의 비밀 속에 나를 담아 길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기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9,15).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비밀을 담고 있고 하느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존엄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비참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아픈 비밀마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비밀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떠나 오히려 허황된 망상을 그분의 자리에 놓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금방 방향과 길을 잃고 헤매는 삶이 된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삶은 오히려 인간의 마음 속에 불안과 걱정을 몰아넣고 결국에는 상처투성이의 가련한 신세로 전락시켜 버린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착한 목자’ 이시기에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 오리라. 상처입은 것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힘 나도록 잘 먹여 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 주겠다”(에제 34,16) 하시며 ‘길 잃은 양’ 인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간의 실존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신앙이다. 겸손한 태도로 하

느님 앞에 자신을 펼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내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비밀이 당신을 향한 나의 기도 속에서 나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묵상 성구

- 시편 139,1-18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 시편 124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 예레 31,31-34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 이사 49,1-16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 요한 3,16-18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에제 34,11-16 상처입은 것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힘 나도록 잘 먹여 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 주겠다.

성찰

1.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매혹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봅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이러한 내 마음의 우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 나의 존재 깊숙한 곳에 하느님의 비밀과 소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참다운 소명이 자각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내 삶에서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쥐고 계신가요?